

정재계 총출동... 박빙리드 지킨다



BIE 가입 급증 총 140국 예상...신규 30개국 개별 접촉

각국 대표단 '한국문화의 밤' 흥겨운 남도가락에 젖어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결정지인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 김재철 유치위원장, 박준영 전남지사, 오현섭 여수시장 등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의 표심을 얻기 위한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은 현재 경쟁국에 비해 박빙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돼 박람회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총회를 앞두고 BIE 가입이 급증하고 있어 낙관하기는 이르다.

○김영석 여수박람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지난 22일(현지시간) 파리 메르디양에

후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프리카와 유럽지역 BIE 회원국들의 표를 놓고 한국과 폴란드, 모로코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여수가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대륙별로 볼 때 아시아와 미주에서는 여수가 확실하게 우세하지만 아프리카와 중동은 모로코 쪽이, 동부 유럽은 폴란드가 강세다. 아프리카와 유럽에서는 경쟁국들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박람회 홍보전의 하이라이프는 23일 저녁 파리 주재 BIE대표단을 대상으로 열린 '한국문화의 밤' 행사, '한국문화의 밤'은 전남도립국악단의 화관무, 가야금

병창, 삼고무 등 구수한 남도 국악으로 시작했다. 각국 대표단이 흥겨운 남도가락에 컷어 들 무렵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재철 유치위원장은 여수의 개최 능력을 설명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의 '대미'는 세계마술경연에서 화려한 수상경력을 가진 우리나라 마술사 이은결씨의 마술쇼와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프라노 이선영, 테너 노현중씨의 클래식 가곡 공연으로 장식했다.

○23일 현재 BIE 회원국 수는 전날보다 4개국이 늘어난 138개국이었다. 앞으로 남은 3일만 3~4개국이 추가로 가입할 예정이어서 이번 제142차 BIE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 국가는 140개국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치단 단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벨기에 브뤼셀과 영국 런던, 본국에서 오는 각국 BIE 대표들과 면담하고 지난 5월 이후 추가로 가입한 30여개국 BIE 대표들은 별도 모임을 열어 여수 지지를 끌어낸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BIE본부가 있는 주 프랑스 한국대

사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파리에 상주하고 있는 90여개 BIE 회원국 대표를 상대로 총력 외교전을 펼치고 있는 대사관은 특히 회원국의 표심 변화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일환 대사는 대사관 내에 설치된 대책 본부를 중심으로 대륙별 관세 추이를 실시간 점검하면서 박빙 우세를 기울어 있는 현재의 흐름을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개최국 결정일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여수시민들의 유치를 바라는 심정도 간절해지고 있다.

2010 박람회 유치 실패라는 쓰라린 경험을 했던 시민들은 "두번의 실패는 없다. 국가와 여수 발전을 위해 엑스포가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거리 곳곳에 박람회 깃발과 태극기 등이 나부끼고 아파트와 상가에도 태극기가 게양되는 등 '박람회 유치'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파리=홍혜경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박영규기자 ykpark@kwangju.co.kr

아프리카·유럽표 놓고 모로코·폴란드와 접전

2012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사활 앞둔 가운데 BIE(세계박람회기구) 대표들을 잡기 위한 한국의 여수와 폴란드 브로츠와프, 모로코 탕헤르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BIE 회원국 중 아프리카와 유럽 회원국들의 표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와 폴란드, 모로코간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로 맞붙는다=27일 오전 3시(한국시간) 프랑스 파리 팔레 드 콩그레에서 열리는 BIE 총회에서의 결정투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여수와 폴란드 브로츠와프, 모로코 탕헤르가 문화로 맞붙는다.

문화전쟁의 서막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오페라와 발레의 전당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23일 여는 '한국문화의

밤'이다. 모로코는 '한국문화의 밤'이 열린 다음날인 24일 파리 메종 블랑쉬에 BIE 회원국 모두를 초청해 문화공연을 결집한 만찬을 베푼다. 뒤이어 폴란드는 25일 파리 콩고르드 광장 옆 트리옹 호텔에서 BIE 회원국 대표들을 모셔 놓고 바덴사 전 대통령 주재로 역시 만찬을 결집한 문화행사를 갖는다.

◇모로코는 국왕 외교, 폴란드는 바덴사=아프리카와 이슬람 최초 세계박람회 개최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는 모로코는 결전지인 프랑스 파리에서 본국이 가깝다는 점을 이용, 27일 개최지 결정투표에 맞춰 전세기 2대로 500여명의 유치단을 파리 현지로 파견한다.

폴란드는 조선소 전기공 출신으로 자국 민주화의 상징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덴사 전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회원국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파리=여수박람회공동취재단

시설

여수엑스포, 막판 유치노력에 달려 있다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 대표단은 김재철 유치위원장과 정몽구 명예유치위원장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대표단에 합류하면서 총력을 벌이고 있다. 여수 유치 여부는 남은 기간의 노력에 따라 판가를 나게 된다.

전체적인 관세는 여수가 여전히 앞서 있다고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절대 아니다. 대륙별로 보면 여수가 아시아와 미주에서 우세하고 아프리카와 중동은 모로코가, 동부 유럽은 폴란드가 강세라는 분석이다. 특히 모로코는 아프리카 및 이슬람권 최초의 박람회 개최를 내세워 여수를 추격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세계박람회기구(BIE) 신규 회원국의 급증이다. BIE 회원국은 현재 한달 전보다 40개국이 늘어난 138개국에 달한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투표일인 27일까지

나주 혁신도시 인구 유인 대책 서둘러라

나주에 조성되는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이 인구유입 대책의 미흡으로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육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의 '지역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종사자의 가족 동반 이주 영향률은 29.2%에 불과했다. 10명 중 7명이 '나홀로'로 이주하겠다는 것이다.

나주 혁신도시에는 애초 오는 2012년까지 이전기관 종사자 5천900명을 비롯해 가족 등 총 1만4천691명이 옮겨 올 예정치보다 6천여명이나 적은 8천467명에 그칠 전망이다. 이전기관의 협력기관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를 역시 강제로 개선하고 이전 공공기관의 협력기관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유인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 전문인력 양성 시급"

'문화도시 일자리 만들기' 워크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금호동 시청자 미디어센터에서 '문화도시 일자리만들기 포럼' 주최로 열린 '문화도시 일자리 만들기 워크숍'에서 호남대 김진강 교수는 "광주의 문화관광 자원과 아시아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연관문화를 관광객에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전문 문화관광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 광주에서 활동중인 문화관광해설사는 대부분 자원봉사자 수준의 활동에 머물고 있어 향후 문화도시 조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 전문

조순형의원 전격 탈당... 민주 '흔들'

민주당 조순형(사진) 의원이 23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명분과 원칙없이 대통합민주신당과의 통합을 추진한 것은 평소 신념에 어긋나 당과 함께할 수 없다"며 전격 탈당했다.

조 의원은 이날 "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기로 할 때부터 이미 탈당을 결심하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합당이 무산됐지만 신당 내부사정으로 합의 이행이 안돼서일 뿐 민주당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지난 12일 신당과 민주당이 4자 합의로 합당에 합의하자 "양당 합당은 민주당이 그간 견지해온 통합 원칙에 어긋나 반대한다"며 "합당 강행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의 탈당으로 민주당의 의석은 7석으로 줄어들게 됐다./연합뉴스



'원본 계약서' 들고 검찰로 23일 새벽 미국에서 전격 귀국한 김경준씨의 어머니 김영애씨가 이른바 '원본 계약서'와 추가 자료를 가지고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BK 이면계약서 원본' 제출... 검찰수사 분수령

내주 진위 여부 판가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BK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이른바 '이면계약서 진위 여부'를 가려줄 계약서 원본이 검찰에 제출되면서 수사가 분수령을 맞았다.

◇BK 실소유주 '이명박 명시(?)' = 김씨 측이 공개한 '주식매매계약서'는 한글계약서는 우선 '매도인(을) 이명박', '매수인(갑)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으로 하고 있다. 계약서는 이어 '본 계약은 갑과 을 사이에 이루어진 BK투자자문의 주식 61만 주의 매수·매도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고 언급했다. 김씨 측은 "이 후보 본인이 BK 소유주라는 것을 증명하는 계약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그러나 김경준씨가 남대문세무소에 신고한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에 따르면 2000년 5월9일 이전까지는 이케뱅크가 BK 전체 주식의 98.36%인 60만주를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이 후보는 당시 BK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따라서 매도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도장 진위 여부=김씨 측이 공개한 한글

계약서의 작성 일자 2000년 2월21일로 돼 있고, 이 후보와 김씨의 도장이 각각 찍혀 있다.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은 최근 한나라당이 이 후보가 당시 도장을 김경준씨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명박씨가 어떤 본인인 지 도장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느냐"고 일축했다.

◇진위 감정 본격 착수=검찰은 대검 문서분석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통해 해당 계약서에 나온 이 후보의 서명과 인감도장 등이 진짜인지를 가린다. 검찰은 다른 자료에서 확보된 이 후보의 영문 서명과 해당 계약서에 나온 서명을 대조하면서 필체뿐만 아니라 종이를 누르는 힘의 필압, 글씨 쓰는 순서, 글자 구성 등을 꼼꼼히 살펴 이면계약서 서명의 위·변조 여부를 따진다.

◇수사결과 발표 언제쯤=이날 제출된 계약서의 서명 및 인감을 감정하는 데만 최소한 수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면계약의 존재 여부와 거래의 실제 등이 밝혀지는 것은 이른바 다음주 초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정몽준 'MB 지지설' 확산

"방관만 하는 것은 무책임...공개 선언 고심중"

무소속 정몽준 의원이 이르면 이달말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할 것이라는 소문이 여의도 정가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후보단일화를 했던 정 의원이 올 대선에서는 막판 이 후보 캠프에 합류, 다시 한번 대선정국에서 '비중있는 조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이 나돌고 있는 것.

이 후보측과 정 의원은 모두 "현재 그런 계획은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으나 양측 모두 적극적인 부인도 않고 있다.

특히 이 후보측에서는 "지지선언을 해 준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은근히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어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선대위 핵심관계자는 23일 "당내 경선 직후 정 의원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소속 이회창 후보 출마 등으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한 측근도 "이달초 정 의원측과 교류가 있었고 (지지선언) 시기 선택만 남아있다"고 전한 뒤 "이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떨어졌을 때 선언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정 의원은 이날 "선거와 정당제도, 후보들에 대한 걱정과 실망을 하고 있으나 정치인으로서 방관만 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서 고심중"이라고 말했다고 정 의원이 전했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또 실례없는 소리 시작 했다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善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업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호동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홍보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재무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